

2024년 12월 29일(주일) 제1715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송구영신예배

12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 항존직 은퇴식·성경통독자 시상·장한 어머니상 시상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회
12월 31일(화)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 /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1월 5일(주일): I·II·III부 예배 시 신년감사예배·성찬식
찬양예배 후 예·결산 승인 공동의회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각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가 교회학교별로 있습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은퇴식과 장한 어머니 시상식, 성경통독 시상식이 열립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황하은 목사 청빙건과 예·결산안을 심의하는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또한 2025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2월 31일(화)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모든 성도

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예배가 손달의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되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첫 주일인 1월 5일(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 및 2024년 예·결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항존직 은퇴자(생년월일 순)

· 안수집사: 김지수 12 윤성남 이우진

· 사무권사: 이건희 윤운 김명화 김화옥 김정희 12 조정옥

■ 장한 어머니상(자녀 개근)

박지혜(정혜윤) 고민정(최아준, 최수아) 윤지연(유서연) 구진영(한세희) 김의정(노윤, 노준) 남재은(임하람) 오재영(주하은) 손영희(한예준, 한예승) 안재희(윤서진) 조상희(김하진) 김혜숙6(이소율) 차현정(윤동현 윤서현) 오숙영(장한술) 이수정(장유정) 이선애(김성주)

■ 성경통독자

· 1독 (1교구) 김애리 김은숙 김혜령 김정제 옥희숙 이선희 채형숙 정금희 채교천 강은경 임송자 이규희 차현정 황금선 박정희 임미경 김정순6 (2교구) 최형열 김찬진 이봉규 추석우(필사) (3교구) 차영도 오만옥 김

순진 전운주 박혜정 전성희 이미송 김소형 강인녕 고은희 문은영 박미영 안미애 오유미 전숙진 조은혜 김희순 황난옥 (4교구) 유명석 김서운 이현정 최중희(필사) (5교구) 김경희 최죽희 조정옥 박현영 송인혁 한상준 (6교구) 노문환 장정화 김명심 정희순 서상근 유승현 한주찬 장운기 최혜순 신동기 양미숙 김복희 (7교구) 김혜식 김혜연 박수옥 박은영 박은영1 이관모 이영주 주경자 (8교구) 강명신 김미성 김명정 남영주 박길자 백승갑 이봉선 제오복 채덕희 (9교구) 이영자 심상필 홍순복

· 2독 (1교구) 조순엽 임춘자 (2교구) 구성현 이은희 (4교구) 김영희1 (5교구) 박동희 (6교구) 김경숙 최근자 (7교구) 황선희 (9교구) 김경숙 전용순 이남성

· 3독 (4교구) 윤현주(필사) 박복순 (5교구) 박정선 (6교구) 유외숙 (9교구) 김찬웅 이남성

· 4독 이상 (2교구) 이순례-4독 양옥자-7독 (4교구) 곽선자-4독 (5교구) 김석봉-15독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 소천 2주기 추모 행사

교회는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소천 2주기를 맞아 2025년 1월 17일(금) 목사님의 묘소를 방문합니다. 이날 천안공원묘원을 함께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각 교구 간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은 1월 5일(주일) 오후 3시까지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9시입니다.

섬김위원 이름 정정

서리집사 9교구: 박해리 -> 박혜리



지난주 1부 예배 시 교회 첫 출석 아기 축복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9교구 김문범 집사·이주희 집사의 아들 김도준 아기, 김영표 안수집사·권소희 권사의 손자, 나기태 권사의 외손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연말



연말을 맞아 남자 노숙자들의 시설인 은평마을에 세계 204개와 휴지 1280롤(1차분)을 전달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의

마침 그리고 시작

신 31:1-8



순달익 위임목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남은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작의 책인 창세기가 있고 종말을 말하는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은 한 시대의 마침을 역사의 종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시대의 마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 하루가 짧아지면 천국 하루가 길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

리는 항상 마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눈을 들어 멀리 내일의 희망을 지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120세의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한 것을 직감한 모세는 자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의 생애는 거대했고 파란만장했습니다. 힘든 삶을 숨 가쁘고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삶의 과제가 남아있음에도 자기 시대의 끝이 왔음을 알고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불타는 광경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넌 후 40년 광야생활을 하며 타 민족들의 저항과 방해, 내부적 갈등과 반역 등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40년을 지내었습니다. 오로지 가나안 한 곳만 목표삼고 치열한 전진 끝에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산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는 장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Deutonomy 두 번째 율법'으로 부릅니다.

“이제 내 나이 백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2절).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종말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120세 노인이 된 그는 스스로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민 20장)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처분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이 일은 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로의 세대교체이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지도부 교체였고 한 시대의 교체였고 한 문명의 교체였습니다. 모세가 위대했지만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책임자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또 광야 시대의 지도력 방식이 가나안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모세는 인간적인 모든 아쉬움과 야망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행 여정은 더욱 새로운 지도력으로 준비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2. 미래를 위한 준비와 신앙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정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역할이 없고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못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 할 일은 백성들에 대한 신앙적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염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지쳐있었고 모세의 죽음이라는 지도부 공백의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었습니다. 요단 강도 건너야 하고 너무나 호전적인 민족들이 기득권을 형성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도 준비해야 하는 엄청난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는 성공적으로 남은 과제를 감당하도록 신앙적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3절) 둘째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4-5절) 셋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강하고 담대하라.(6절) 결국 남아 있는 결정적 역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임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두 미래의 일들입니다. 미래적 환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논리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내용 중에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근대의 쇼펜하우어를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대학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만민의 숭앙을 받는 성자가 되었고 무신론자였던 쇼펜하우어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염세주의 철학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앙이 미래를 결정하고 자기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었고 삶의 힘과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준비를 위해 마지막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모세가 한 세 번째 준비는 탁월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를 격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그의 책임과 사명을 명백하게 부여했습니다. 이 일은 모세 자신에게 무겁고 힘든 일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아쉽고 슬픈 일이지만 그는 개인적 아쉬움에 상관하지 않고 후계자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길 것을 예측하면서 그때 해야 할 일과 기억해야 할 말씀을 노래로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그와 함께 긴 세월을 함께 한 열두지파의 이름들을 열거하며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래를 위한 비전을 품고 위대한 역사 건설을 위해 출발하도록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마침입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지난날의 미완에 대하여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가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책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도 돈도 화려함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내일이 있고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도 돈도 화려함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내일이 있고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1. 기도로 제4대 담임(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정년 은퇴를 앞두고, 제4대 담임(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 기도회'를 2월 17일(토)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모시는 목사님에 대한 성도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6월 9일(주일)부터 2주간 청빙을 위한 교인 설문 조사를 목회데이터연구소를 통해 객관적이며 전문적 분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1일(주일) 순례자 지면과 기록공보 등을 통해 제4대 담임(위임)목사 청빙을 공고하였고, 현재 은혜 가운데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청빙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제17대 장로, 제16대 안수집사, 제15대 권사를 선출하고 여성에게도 안수하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되게 교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19일(주일)에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제17대 장로 1명과 제16대 안수집사 10명, 제15대 권사 22명을 선출하였으며, 지난 11월 24일 교회설립 33주년 되는 날 임직 감사예배와 임직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권사임직 예식에서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안수하여 항존직 일꾼 세우는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1994년 총회에서 여성안수가 결의되어 총회 헌법에서 안수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일꾼을 세우도록 규정되었으나, 여러 사유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30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여성안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총회)의 여성안수에 관한 신학적 논쟁에서, 이종윤 목사님께서 신학적 해석과 결론을 맺어 주셨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일들을 올해 처음 실행함으로, 고 이종윤 목사님의 신학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성별 차별 없이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3.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명하신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① 청년부를 중심으로한 18명의 필리핀 비전트립팀이 2월 8일(목)부터 13일(화)까지 필리핀 불라칸 바티아 지역에서 도시 빈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혼란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실천하지 못했던 주님의 지상명령을 다시금 이행하며 다시금 서울교회에 선교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② 농어촌100교회 후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지정한 전남노회 소속 농어촌교회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구제와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① 의료선교회에서는 7월-8월 5주간에 걸쳐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성도와 이웃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② 11월 16일(토), 우리 교회와 (사)더불어배움 그리고 대치1동 주민센터가 함께 준비한 '금나새 오케스트라 초청 마을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한 이웃주민이 250여 명 이상 될 정도로 많은 이웃이 함께 하였으며, 우리 교회의 그레이스앤드벨피아어와 라투체트리오(남성중창단)가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음악회였습니다.

③ 12월 11일(수) 우리 교회와 대치1동 주민센터가 연합하여 교회 옆 한티근린공원과 우리 교회를 연결한 '한티 별빛공원' 조성공사와 공원과 교회를 연결하는 '빛의 길'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발걸음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5. 구제 사역에 힘쓰는 한해였습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① 연말을 맞아 남자 노숙자들의 시설인 은평마을에 세제 204개와 휴지 1280롤(1차분)을 전달했습니다

② 권사회는 대치4동 주민센터부터 30가정을 안내받아 70인전도대와 함께 가가호호 방문하며 권사들이 직접 정성으로 준비한 도시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6. 한국교회 선교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교유적지 탐방으로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순달의 위임목사님께서 지난 '23년 2월부터 14개월간 순례자 지면을 통하여 우리나라 역사 한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① 순례자 편집부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한국교회사 50장면'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성도와 이웃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② 지난 4월 13일(토)부터 5월 25일(토)까지는 각 교구 단위로 전주, 인천, 강화, 정동, 화성 등의 국내 선교유적지를 기독교 역사 전공 목사님을 모시고 상세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선교유적지를 탐방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기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과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 미디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SNS, 카카오톡,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들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꾸준히 외부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분야의 많은 성도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고 바른 신앙적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 유튜브와 ▲ 인스타그램

8. 재물조사 실시로 교회 시설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교회는 각 부서, 각 실에서 사용하는 가구와 집기류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중구입 등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재물조사를 2주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귀한 물질이 낭비됨 없이 복음 사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 이민호 장로 • 임종현 안수집사(편집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김지수 안수집사
(70인전도대 대장)

저는 올해로 서울교회 안수집사에서 은퇴합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던 나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걸음마하는 아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2부 안내와 시온 찬양대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놓여준 전도와 70인전도대로 불러주셔서 내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교회 분쟁과 회복의 과정을 기도로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하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 뜻

하지도 않게 은빛찬양대 대장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은빛찬양대 대장이라니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믿음과 겸손과 순종함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믿음의 대선배님이신 은빛찬양대 대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받들면서 온 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또한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70인전도대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빛진 자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서울교회에 나와 보세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쁜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 보호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전도’ 이 두 가지 사명으로 남은 순례자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정체성의 혼돈시대, 서울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김은석 안수집사
(새가족부 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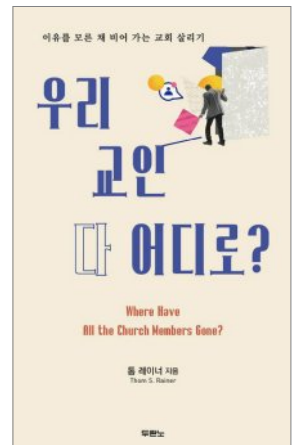
최고의 팀과 즐겁게 일한 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으로 사역하신 박미라 목사님, 무술로 표현하자면 택견의 노제현 부장님과 태권도의 차영도 부장님, 세심하고 따뜻한 남태영 부감님, 그리고 수료한 새가족들이 다시 찾아와 안부를 물을 만큼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신 모든 교사분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우리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등록교인 청·장년부 모두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표 참고)

일전 교회 부서 모임에서 새가족 교육 수료자와 나눈 대화를 계기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책 한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사진) “우리 교인 다 어디로?”(부제:이유를 모른 채 비어 가는 교회 살리기)라는 책에서 톰 레이너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포

도나무)와 교인(가지)의 올바른 연결(connection)에서 교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새가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단절감을 느끼는 새가족들의 아쉬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인구의 감소(특히 기독교)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Less religious, more spiritual”로 표현되는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 변화를 소개하는 기사와 더불어 최근 KAIST에서 인공지능(AI) 신당을 개발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접하면서, 기독교 정체성의 혼돈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서울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기도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바른 신학의 기초가 튼튼한 서울교회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새가족들에게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등록 교인으로서 해

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육을 마치면 포도나무로부터 계속적인 영적 영양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와 강한 연결(connection)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하고 견고한 연결속에서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제자로 성장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 연결되는 새로운 가지가 계속 접붙여진다면, 서울교회는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건강한 포도나무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정미연 권사님과 교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환영회 식사를 더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최중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TEAM 2025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TEAM 2025, 화이팅!

등록교인		2023년		2024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등록교인		67명		58명	
교육 수료자		31		26	
등록유형	본인	40	59	22	38
	인도자	27	41	36	62
부서별	유아 / 유치부	8	12	11	19
	유 / 초등부	9	13	8	13
	중 / 고등부	3	5	5	9
	청년부	12	18	5	9
	장년부	35	52	29	50
교구별	1 / 2 / 3	48	72	38	66
	4 / 5 / 6	13	19	10	17
	7 / 8 / 9	6	9	10	17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만주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며 교회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 25일(수) 성탄축하예배 ▼ 22일(주일) 오전 11시에는 사랑부의 성탄축하 성극공연이,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국 학생들의 성탄절 특별찬양이 있었습니다.



식사 제공



- 9교구
 송인수 안수집사
 가정
 (둘째 딸 결혼을
 감사드리며)

예배당 입장 시, 음료 포함 음식물은 자제하여 주세요

예배당 입장 시, 음료 포함 음식물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음료 필요시 텀블러나 캡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12월30일	월	
12월31일	화	
1월1일	수	창 1-3
1월2일	목	창 4-6
1월3일	금	창 7-9
1월4일	토	창 10-13

맥체인 성경통독			
대하35	계21	말3	요20
대하36	계22	말4	요21
창1	마1	스1	행1
창2	마2	스2	행2
창3	마3	스3	행3
창4	마4	스4	행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새해를 맞아 말씀과 기도로 순례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서울교회가 되어, 복음과 사랑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4대 위임목사 청빙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 대한민국 사회 모든 영역에 빠른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 | | |
|----------|-----------------|--------|-----------------|
| ◇ 부목사 | 장석남 김익환 최종국 황하은 | ◇ 사무장로 |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 교육목사 | 박미라 손주찬 |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 준전임전도사 | 전진석 |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 교육전도사 |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 임우택 |
| ◇ 협동목사 | 양정호 | |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